

PHARMACEUTICAL

국내 의약품시장 규모는 93년기준 5조626억원으로 이는 GNP대비 1.9%, 세계 의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로 나타났으며, 의약분야 제조기업수는 93년기준 총 378개 기업으로 완제의약품 246개, 원료의약품 128개, 의약부외품 62개 기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 의약산업은 80년대들어 15% 내외의 고성장을 유지해 오다 92년부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시장포화 등의 원인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한자리수의 저성장을 보였다.

94년 국내 의약산업 회복세

93년 의약품 생산액은 총 5조627억원으로 의약품 제조구분별로는 완제의약품이 4조3753억원, 원료의약품이 2872억원, 의약부외품이 3330억원을 기록했다.

제조구분별 생산비중은 완제의약품이 85.8%, 원료의약품이 5.14%, 의약부외품이 6.58% 등으로 완제의약품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주요 약효군별 의약품 생산실적을 보면 자양강장변질제 생산액이 5088억원에 달했으나 생산증가율은 1.1%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혈관계 의약품을 포함하는 순환계용약의 생산액은 4408억원으로 전년대비 14%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순환계용약의 생산증가율은 88년이후 연평균 28%에 달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선진국형 질병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비타민제와 진통소염제는 93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성장정체 품목으로 나타났다.

93년 국내 의약품 수출액은 총 3억1537만달러로 완제의약품이 92년대비 11.4% 증가한 6531만달러, 원료의약품이 18.4% 증가한 2억4646만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의약품 제조구분별 생산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1990	1991	증감률	1992	증감률	1993	증감률	1994(상)	증감률
완제의약품	31,871	37,098	16.4	39,964	7.7	43,753	9.4	23,779	-
원료의약품	1,878	2,449	30.4	2,646	8.0	2,872	8.5	1,643	-
소분품	160	249	55.6	298	19.6	333	11.7	147	-
부외품	2,113	2,525	19.4	2,972	17.7	3,330	12.0	1,979	-
위생용품	173	205	18.4	255	24.4	302	18.4	133	-
합계	36,196	42,525	17.5	46,399	9.4	50,627	9.1	50,627	13.3

국내 의약품 주요 약효군별 생산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1988	1990	1992	1993	증감률	1994(추정)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순환계용약	1,148	2,345	3,867	4,406	14.0	5,200	18.0	28.6
위장약	1,352	2,020	2,486	2,751	10.7	3,070	11.6	14.6
건위소화제	835	1,254	1,574	1,564	5.1	1,800	8.5	13.6
자양강장변질제	3,017	3,903	5,032	5,088	1.1	5,500	8.1	10.5
비타민제	909	1,364	1,538	1,415	-8.0	1,480	4.6	8.5
진통소염제	542	666	777	772	-0.7	820	6.3	7.1
해열진통제	2,219	3,094	3,641	3,775	3.7	4,000	6.0	10.3
백신류	405	614	1,125	1,434	27.4	1,650	15.0	26.3

이러한 수출실적은 국내 의약품 생산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국내 의약산업이 아직도 내수위주의 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구분별 비중은 제약원료의 수출액이 2억4848만달러로 전체의 7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원료중간체는 3218만달러로 나타났다.

의약품부외품을 포함한 완제의약품의 수출액은 8532만달러로 20.7%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 수출실적은 페니실린계 항생제원료인 Amoxicillin과 Ampicillin의 수출액이 각각 3480만달러와 1022만달러를 기록해 거대 수출품목으로 나타났다.

92년부터 수출되기 시작한 세파계 항생제원료인 Cefazolin의 수출액도 1993만달러에 달해 향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항결핵제인 Rifampicin은 중국 등의 저가공세로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으로 수출액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료의약품 수출은 페니실린계 항생제원료 등 선진국에서는 생산이 급감하고 있는 저가원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중국 등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헤파박스B 등 감염치료제의 수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의약품 수입액은 총 6억1293만달러로 제조구분별로는 제약원료의 수입이 4억3879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71.3%를 차지하고 있다.

완제의약품의 수입은 1억4245만달러로 전체의 23.2%, 의약품부외품은 1101만달러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완제의약품의 수입은 27.7%의 높은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의약시장의 개방으로 수입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약품 생산 거대품목을 보면 박카스F가 전년대비 13.4% 증가한 837억원의 생산을 기록해 생산1위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94년에도 높은 생산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최초의 매출 1000억원 돌파 품목이 될 전망이다.

이어 원비디가 525억원 생산으로 2위, 헤파박스B가 345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으며,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중 헤파박스와 프레팔시드를 제외한 8개 품목이 자양강장변질제와 영양제 등 OTC 제품으로 나타났다.

10대 제약기업 매출추이

(단위 : 억원, %)

기 업	1993	1994	증감률	1995(목표)
동 아 제 약	2,044	2,400	17.4	2,700
녹 십 자	1,440	1,550	7.6	1,800
유 한 양 행	1,393	1,480	6.2	1,762
제 일 제 당	1,267	1,500	18.4	1,800
일 양 약 품	1,218	1,230	1.0	1,460
동 화 약 품	1,197	1,282	7.1	1,470
대 웅 제 약	1,013	1,150	13.5	1,380
영 진 약 품	1,011	1,120	10.8	1,355
종 근 당	1,004	1,110	10.6	1,340
중 외 제 약	983	1,110	12.9	1,270

드링크류 등 자양강장변질제는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나 비타민류와 영양제 등은 시장포화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료의약품의 품목별 생산실적을 보면 종근당의 리팜피신이 117억원 생산으로 최대 생산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우평의 아목시실린도 생산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Cephazoline 등 세파계 항생제원료의 생산증가율이 5~15배에 달해 급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아목시실린 등 페니실린류의 항생제원료가 세파계 항생제로 급속히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또 리팜피신과 아목시실린 등 구세대 항생제원료는 부가가치가 낮고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으로 인디아와 중국 등 후발 개도국으로 설비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업별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을 보면 유한양행이 240억원으로 국내 최대의 원료의약품 생산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영진약품이 226억으로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생산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생산설비의 해외이전과 중국 등의 저가원료와의 가격경쟁으로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64억원의 제약원료를 생산해 전량 수출한 우평과 세파계 항생제를 생산하는 국제약품의 생산증가율이 200~500%에 달해 성장이 두드러졌다.

OTC제품 및 원료의약품 호조

94년들어 국내 의약산업은 경기호전과 함께 OTC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수출수요를 중심으로 원료의약품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의약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경기는 93년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가 살아나고 내수와 수출부문에서도 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94년 상반기 GNP 성장률이 8.3%, 하반기 7.5%에 달하는 등 호황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경기애 민감한 일반의약품 중심의 의약품산업은 경기호황의 영향으로 상반기 생산증가율이 13%대의 고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반기에도 상반기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드링크류 등 OTC 제품의 호조에 힘입어 10% 정도 성장해 94년 전체적으로 1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94년 상반기 의약품 총생산실적은 2조7680억원으로 93년 동기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적은 의약품 생산이 91년이후 계속된 침체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조구분별 생산실적을 보면 완제의약품의 경우 전체 의약품 생산액의 85.9%인 2조3779억원을 생산, 기록해 93년 동기대비 12.6% 증가했다.

또 원료의약품은 1642억원 생산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한 고성장을 나타냈으며, 의약부외품 생산액도 1979억원으로 23.5%의 높은 생산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신약개발 현황

구	분	기	업	개	발	현	황	기타 개발기업
항생제	Cephalosporin	L	G	화	학	4세대 세파계 개발		대웅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영진약품, 미원
		제	일	제	당	CFC-240 개발단계		
		유	한	양	행	YH-1266 개발단계		
	Carbapenem	동	아	제	약	DA-1131 전임상		동아제약, 대웅제약, 종근당, 동국제약, LG화학
		동	국	제	약	DK-35C 전임상		
	Quinolone	중	외	제	약	Q-35 임상2		제일제당
항생제	백금착제	동	화	약	품	DW-116 개발초기		
		선	경	인	터	스트리	SKI-1053R 임상2	일양약품, 동일신약, 보령제약
		동	아	제	약	DA-125 임상1		
심장 순환제	Cytos	신	풍	제	약	전임상		
	Lumbrokinase	신	풍	제	약			선경, 동아제약, 제일제당, 한일합성, 일양약품, 보령
	Hirudin	동	국	제	약			제약, 화학연구소
	부정맥치료제	중	외	제	약	KCB		
	Ca길항제	유	한	양	행	YH-334		
위궤양 치료제	Proton Pump	유	한	양	행	YH-1238		한미약품, 동화약품, 영진약품, 일양약품, 중외제약
	Inhibitor							
항바이러스	HSV	선	경	인	터	스트리	SKI-1694	종근당, 신풍제약, 보령제약, 한울제약,
	HIV							삼진제약, 제일제당
소염 진통제	비마약성	동	아	제	약	DA-5018 전임상		삼진제약, 동화약품, 영진약품
	천연물	동	화	약	품	연구단계		
간장치료제	B형 간염치료제	녹	십	자		개발중		
	C형 간염백신	L	G	화	학	개발중		
		유	한	양	행	YH-439 임상1		
		일	양	약	품	GOO9 개발중		

반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던 소분약품은 이례적으로 생산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위생용품 생산도 12.8%의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94년 하반기도 경기호황세가 이어지고 드링크류의 여름특수에 힘입어 OTC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원료약품의 수출도 호조를 보였으나, 제약업계가 기대했던 약가자율화가 물가안정시책에 묶여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제약시장 구조상 급격한 양적팽창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상반기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94년 하반기 의약품 총생산액은 93년 동기대비 10% 증가한 2조9000억원을 기록해 94년 전체 의약품 생산액은 93년대비 11.5% 증가한 5조646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94년 의약품 생산을 약효군별로 보면, 상반기중 그람양성·음성균약이 2203억원 생산으로 전체 완제 의약품 생산액의 9.3%를 기록해 점유율 1위의 약효군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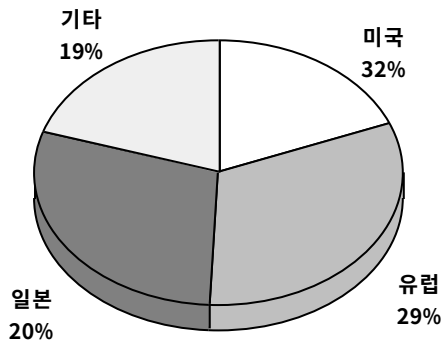
또 진통소염제가 2002억원 생산으로 25.4%의 높은 생산증가를 기록했으며, 드링크류를 포함한 자양강장변질제 생산액도 1623억원으로 19.3%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생물학제제는 18%의 생산감소를 기록해 백신파동의 후유증을 반영했으며, 항생물질제제도 5%의 소폭 성장에 머물러 부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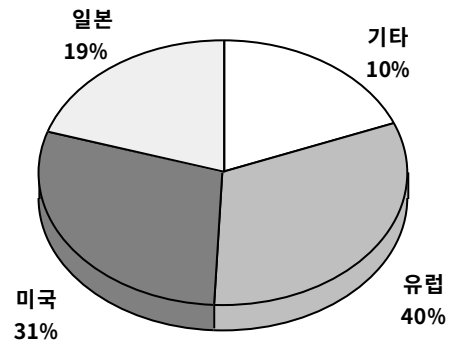
따라서 의료보험 확대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전문의약품 생산이 위축된 반면 경기에 민감한 일반의약품 생산은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상반기중 전문의약품 생산액은 9502억원으로 93년 동기대비 7.6%의 낮은 성장에 머물고 일반의약품 생산액은 1조4406억원으로 16.2%의 고성장을 기록해, 전체 완제의약품중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93년의 42%에서 40%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의약시장 점유율



세계 지역별 의약 생산비중



세계 약효군별 의약품 시장규모

(단위 : 100만달러, %)

구 분	1978	1988	1993	연평균증감률
심혈관계용약	8,000	26,590	38,225	11.0
항 균 제	9,300	25,975	34,445	9.1
소 화 기 관 용 약	7,800	21,540	27,130	8.6
진 통 제	7,200	16,895	19,065	6.7
호 흡 기 관 용 약	4,200	11,245	14,210	8.4
영 양 제	3,600	10,630	13,095	9.0
외 용 제	3,700	9,130	10,260	7.0
정 신 용 제	4,200	8,820	10,930	6.5
기 타	3,500	9,980	11,650	8.3
합 계	51,500	140,805	179,010	8.6

세계 2000년 매출 10억달러 이상 예상품목

(단위 : %)

구 분	품 목	기 업	비 고
30억달러이상	Epogen/Proorit(arythroipoistin)	Cilag 외	
20~30억달러	Rosec(Omeprazol)	Astra 외	항궤양
10~20억달러	Fluconazole	Pfizer	항진균
	Fluticasone	Glaxo	천식외
	HGH	Zenetec 외	성장호르몬
	Humulin/Novolin	Lilly, Novo	휴먼 인슐린
	Sumatriptan	Glaxo	편두통
	Intran A	Shering 외	암/C형 간염
	Novask(Amlodipine)	Pfizer	고혈압
	Pepcid(Famotidine)	Merck 외	항궤양
	Pravacol/Mevartotin(Pravaetatin)	BMS 외	지질저하
	Prozac(Fluoxetins)	Lilly	우울증
	Vasotec(Enalapril)	Merck	고혈압
	Zantac(Ranitidine)	Glaxo	항궤양

일반의약품의 호조와 전문의약품 부진 경향은 하반기에도 이어져 94년 전체적으로 일반의약품 생산액은 93년대비 15% 성장한 2조9000억원, 전문의약품 생산액은 7% 성장한 1조9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원료의약품 수출 증가세

중국·인디아 등 후발개도국 의 저가공세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던 원료의약품 생산은 아목시실린, 세파졸린나트륨 등 항생제원료 생산이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큰폭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상반기 전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93년 동기대비 17.4% 증가한 1643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5억원이상 생산한 원료의약품은 73개 품목으로 1328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리팜피신의 경우 생산시설을 인디아로 이전함에 따라 생산액이 20% 감소한 반면, 아목시실린이 236억원, 세프트락심나트륨이 67억원 등 항생제 생산액이 690억원에 달해 전체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의 51.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원료의약품 생산도 항생제원료의 수출수요를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94년 전체적으로 93년보다 15% 정도 증가한 3200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94년 의약품 수출은 전체수출의 77%를 차지하는 제약원료의 호조에 힘입어 93년에 비해 20% 내외의 고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의약품 수출액은 93년 동기대비 20.2% 증가한 1억5457만달러로 나타났으며, 제약원료 수출액은 1억1914만달러로 93년 동기대비 2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약품 수입도 진단용의약품 수입이 급증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94년 3/4분기까지 수입실적을 보면 전체 의약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제약원료의 수입이 17.9% 증가한 3억 9497만달러에 달한 반면 완제의약품 수입은 12% 감소한 9375만달러로 나타났다.

94년들어 의약산업이 생산면이나 기업들의 영업활동면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매출도 일반의약품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산업이 본격적인 활황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생산증가율에 비해 매출증가율이 4% 이상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단순히 의약기업들이 과잉생산한 것으로 파악되기 보다는 약가덤프·무자료거래 등 유통상의 문제점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95년 국내 의약산업 호조지속 전망

95년 의약산업은 국내경기가 94년의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의약산업 주변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94년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95년 세계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활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경기도 내수와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해 경제성장률이 7%대의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구조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국내 의약산업도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또 KGMP 시설투자가 일단락되고 시중금리의 안정에 따라 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 부담이 줄어 경상이익도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의약시장도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기존시장의 급격한 양적 확대보다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와 이에따른 가격인상이 성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95년 의약품 생산은 전체적으로 94년대비 12% 정도의 성장으로 6조3000억원대의 생산이 예상된다.

이중 일반의약품은 경기호황이 효과적으로 반영된다면 13%정도 성장하여 3조3000억원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문의약품도 의료보험의 정착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증가로 94년 성장률보다 높은 10% 정도의 성장으로 2조1000억원의 생산이 예상된다.

95년에는 신약개발에 대한 성과도 일부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미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신경의 백금착제항암제와 동아제약의 DA-125 항암제, 유한양행의 YH-439 간장치료제, 중외제약

의 퀴놀론계 항생제, 중근당의 카바페넴계 항생제 등의 상품화 여부가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약개발이 성장과제

국내 매출액 1위기업인 동아제약의 93년 매출액이 2060억원으로 세계 최대의 제약기업인 Merck의 매출액 82억달러의 1/30에도 못미치는 등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신약개발력의 미흡으로 인해 OTC 제품위주의 영업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가구조의 왜곡, 과도한 광고선전비용, 실제이상의 판매촉진비의 지출이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분석된다.

93년 상장제약기업들의 영업비용을 보면 광고비와 판촉비 지출이 감소해 영업활동이 위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고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광고비가 감소한 것은 광고비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OTC제품 시장의 침체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출액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은 상장기업평균 7.8%로 나타났으며, 판촉비 비율은 평균 2.3%로 나타났다.

국내 약가구조 및 유통구조를 감안하면 판촉비 등 영업비용은 나타난 수치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국내 제약산업은 물질특허제도, 의약품 수입자유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 등으로 우수한 제품과 마케팅력을 겸비한 외국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확대로 신약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확대로 신약개발 및 기존제품의 제조방법 개발 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원료의약품 분야의 개발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항생제 매출규모

(단위 : 백만달러)

상품명	생산기업	1992년 판매액		항생제 계열
		미국	세계	
Augmentin	SKB	403	1,031	βLactamase inhibitor
Ceclor	LILLY	640	930	Cephalosporin
Rocephin	H-LR	347	819	Cephalosporin
Cipro	MILES	605	790	Quinolone
Primaxin	MERCK	155	555	βLactamase inhibitor
Fortaz	GLAXO	70	462	Cephalosporin
Ceftin	CLAXO	330	450	Cephalosporin
Amoxil	SKB	70	429	Penicillin
Unasyn	PFIZER	130	284	βLactamase inhibitor
Biaxin	ABBOTT	140	280	Macrolide
Minocin	LEDERLE	75	250	Tetracycline
Zinacef	GLAXO	50	234	Cephalosporin
Cleocin	UPJOHN	75	225	Antibiotic(General)
Noroxin	MERCK	60	205	Quinolone
Vancocin	LILLY	80	190	Antibiotic(General)

또 차세대 항생제로 주목받고 있는 퀴놀론계 항생제와 항암제, AIDS치료제 등의 시장확대가 예상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시장이 급진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분야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 제약기업들은 특히 환경규제의 강화와 고임금 등 제약환경의 악화로 고전하면서 해

외 현지단독법인, 합작법인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생산플랜트의 해외이전과 플랜트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말 현재 현지법인 형태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은 8개 기업으로 12개의 현지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독십자가 87년 연구개발 목적으로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93년에는 1500만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하여 인도네시아에 간염백신 생산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아제약이 중국에 진출하여 박카스병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일양도 최근 중국에서 의약품 현지생산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의약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비용이 매출액대비 3~4%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국내의약기업의 매출액이 외국 거대기업의 1/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성을 감안하면 연구개발비의 절대액수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최소한 150명 이상의 연구인력과 1억달러 정도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므로 투자자원 확보를 위해 매출액이 5억~10억달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국내 매출 1위기업인 동아제약의 경우 매출액이 2억5000만달러 수준에 머물고 연구개발비는 1000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 의약기업 Merck의 경우 93년 브랜드처방약 매출액이 88억2200만달러, R&D비용이 12억200만달러로 R&D 비율이 13.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다국적기업들도 R&D비용 10억달러 내외, R&D비율 15~2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계 의약시장 다국적기업 주도

세계 의약품시장은 93년기준 총 254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가별 시장규모를 보면 미국이 813억달러로 전세계시장의 32%를 차지해 세계 최대의 의약품시장으로 나타났다.

이어 EU지역 시장이 736억달러로 29%, 일본시장이 508억달러로 2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3개지역이 전세계 의약품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의약품 생산면에서는 EU지역이 세계 최대의 의약품 생산지역으로 전세계 의약품 생산액의 40%를 차지해 세계 의약품의 주요 공급지역이 되고 있다.

이어 미국이 전세계 의약품생산액의 31%, 일본이 19%를 차지해 이들 3개지역의 생산비중은 전세계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의약품시장은 다국적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M&A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집중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국적 의약기업들의 92년 매출액을 보면 미국의 Merck가 82억달러, 영국의 Glaxo가 80억달러, 일본의 다케다가 5647억엔으로 국내의 93년 국내 의약품 총생산액과 동등 이상의 규모이다.

선진국에서는 고혈압 등에 관련된 Ca채널차단제, ACE저해제 등 심혈관계약품과 궤양치료제 등 소화기관계약품의 판매량이 높고, 개발도상국에서는 항생제의 판매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생명공학 의약품 분야는 91년 36억달러 규모에서 92년에는 53억달러로 40% 이상 신장하는 등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93년 약효군별 세계시장규모를 보면 전체 1790억달러의 의약품시장중 심혈관계 의약품이 382억2000만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78년이후 연평균성장률도 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생제시장은 344억4000만달러로 2위 규모의 약효군으로 나타났으며, 개도국 중심으로 연 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외용제와 진통제시장은 90년 이후 성장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의약품시장의 92년기준 주요 치료군별 판매순위를 보면 Ranitidine, Omeprazole 등 궤양치료제가 1위, Cephalosporine으로 대표되는 항생제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2년 세계 매출상위 10대품목을 보면 H2길항제인 Glaxo의 Ranitidine의 매출액이 34억달러로 최대 매출품목으로 나타났으며, Ca채널차단제인 Nifedipine이 뒤를 잇고 있으나, 향후 Omeprazole이 특히

만료로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Ranitidine을 제치고 매출1위 품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92년 품목별 항생제 매출규모를 보면 베타락탐계 항생제인 Augmentin이 10억3000만달러로 최대 매출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세파계 항생제인 Ceclor가 9억3000만달러로 뒤를 잇고 있다.

향후 Cephalosporine계 항생제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Quinolone계 항균제도 급속한 시장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나 Penicillin계와 Tetracycline의 매출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OTC의약품 시장은 92년기준 461억달러로,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의료서비스 축소정책의 영향으로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의약품 특허만료시기 (단위 : 100만달러)

제 품 명	기 업	매출규모	만료일
Lopid	Warner-Lambert	420	1993.1
Ansaid	Upjohn	205	1993.2
Xanax	Upjohn	675	1993.10
Vepesid	BMS	275	1993.11
Lopressor	Ciba-Geigy	275	1993.12
Naprosyn	Syntex	700	1993.12
Micronase	Upjohn	395	1994.1
Seldane	Marion Merrell Dow	850	1994.4
Tagamet	SK Beecham	775	1994.5
Cardizem CD	MMD	600	1994.12
Dilacor XR	Rhone-Poulenc Rorer	250	1995.5
Capoten	BMS	655	1995.8
Sandimmune	Sandoz	250	1995.9
Zantac	Glaxo	2,500	1995.12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의약시장 대변혁 시작

세계 의약품시장은 93년부터 대변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약가인하 정책과 브랜드 의약품의 가격경쟁 심화로 제네릭 제품으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의약기업의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W-L의 Lopid 등 70년대 초에 개발된 브랜드의약품의 특허만료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연구개발 중심의 의약기업의 수익률 저하가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랜드 의약품의 약가하락으로 거대제약기업들이 제네릭 제품으로의 전환과 OTC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개발비용의 절감과 제품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제약기업간 M & A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92년 현재 북미시장이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으나 향후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이 7%대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세계 벌크의약품시장은 92년기준 265억달러로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벌크의약품시장은 Ranitidine이 최대 판매품목이나 특허만료시기와 제조원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95년 이후에는 Omeprazole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매출 10억달러이상 품목은 14개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1위 의약품은 30억달러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Epogen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Zantac은 95년 특허만료로 매출액이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대체품목인 Rosec의 매출액은 20억달러를